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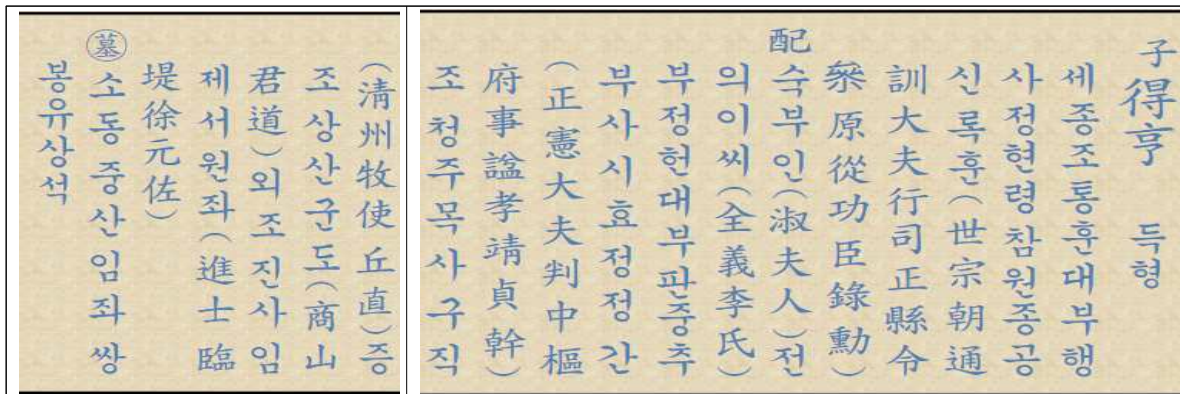
2. 남해현령공파(南海縣令公派)

득형 得亨, 10세, 남해현령공파 중시조, 사정(司正 무관직), 현령(縣令 종5품)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 단종재 1440~1450	星州牧使派성주목사공파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명종대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 렬왕대	敬興 경여 典客令 전객령	嵒金 좌贊成 좌찬성	致龍지룡 都察議事 도참의사사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태조재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제감부정	珪圭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 세종재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재	宗孫宗손 保功將軍 보공장군 忠順衛 충순위	1 士榮사영 宣略將軍 선략장군 忠順衛 충순위	太始태시 竹山府使 죽산부사	德祐덕우 箕子殿參奉 기자전참봉	尙正尙정 生父 생부 德文	一道일도
											2 사용士雄 정릉참봉 靖陵參奉	태허太虛 기자전箕子殿參奉	덕소德邵 장사랑 將仕郎	상진尙眞 통덕랑 通德郎	지도志道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조선 세종재	(全州)判官公(전주)판관공파					
									4 得貞득정 進士 문종	進士公派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3 用富용부 開國功臣 개국功臣 判尹 조선 태조재	判尹公派판윤공파							

9세 현규의 차남. 족보 기록에 의하면, 사정(司正:5위五衛 소속 정7품 무관직), 현령(縣令:지방 행정 단위인 현에 둔 종5품) 벼슬을 했으며 원종공신(原從功臣:왕을 수종隨從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으로 녹훈(錄勳)되었다.

<연주현씨대동보9수보 원문>



종손 宗孫, 11세, 성종조(成宗朝) 보공장군(保功將軍) 충순위(忠順衛)

사영 士英, 12세, 선략장군(宣略將軍) 충순위(忠順衛)



十世 縣令公 諱 得亨과 配淑夫人 全義李氏의 墓(雙封)
所在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학리(소동)



十一世 忠順衛 諱 宗孫과 配淑人 咸原朴氏의 墓(雙封)
所在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학리(소동)



十二世 宣略將軍 諱 士英公 配令人 順興安氏의 墓(上下卦)
所在地 : 전남북도 예천군 지보면 매침리(지촌출산)

태시 太始, 13세, 통훈대부(通訓大夫), 임천부사(林泉府使)

1527년(중종中宗 22년)에 태어났다. 자(字)는 사수(士遂), 호(號)는 학성정(學聖亭)이다. 명종조에 진사 장원급제(明宗祖 壯元進士)를 했으며, 통훈대부 임천부사(通訓大夫 林泉府使, [註](#)) 벼슬을 했다.

족보에 ‘公天雅淑至行純默切於爲己不求人知涵養德性實履高明文章瞻富無意應舉宗族咸勸一舉進壯性受林泉羅浮下洛江上作學聖綠水二鼎以終餘年遺稿失於兵火’라고 기록되어있다. 풀이해보면, ‘공은 천성이 우아하고 맑고 행동은 순수하고 묵묵해 자신을 수양함에 절실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덕성을 함양하고 실질을 행했다. 문장에 고명하고 부가 넉넉해 과거에 응할 뜻이 없었다. 종친들이 모두 권하니 한번 나아가 군센 성품으로 임천부사를 받았다. 한바탕의 꿈을 내려놓고 나부산으로 내려갔다. 낙동강 위에 학성과 녹수 두 정자를 만들고 여생을 마쳤다. 유고가 있으나 병화에 사라졌다’. 1578년(선조宣祖12년)에 돌아가셨다.

- * 임천 : 현 부여군
- * 羅浮 : 나부산(예천군의 산)
- * 학성과 녹수 : 정자 이름

현태시의 식년시 진사 합격 기록	한국국학진흥원 『가정34년을묘3월초7일사마방목(嘉靖三十四年乙卯三月初七日司馬榜目)』
[진사] 명종(明宗) 10년(155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16위(21/100) 자(字) 자수(子濠) 생년 정해(丁亥) 1527년 (중종 22) 합격연령 29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용궁(龍宮) 선발인원 100명 [一等5 · 二等25 · 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구경하(具慶下) [부(父)] 성명: <u>현사영(玄士英)</u> 품계: <u>선략장군(宣略將軍)</u> 관직: <u>충순위(忠順衛)</u>	

(註: 족보상 현태시(玄太始)는 동명이인으로 두 분이 있는 바, 죽산부사를 역임한 현태시 공은 승지공파 17세(1599~1662)이고, 임천부사를 역임한 현태시 공은 남해현령공파 13세(1527~1578)이다. 족보에는 남해현령공파 현태시 공이 죽산부사라고 한글로 표시되었으나, 한문 기록에는 임천(林泉)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글 기록이 오류이다. 따라서 남해현령공파 현태시 공은 죽산부사가 아니라 임천부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諱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렬왕대	敬輿 경여 典客丞 전객령	嵒金 좌금 左贊成 좌찬성	致龍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태조대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圭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 세종대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	宗孫宗손 保功將軍 보공장군 忠順衛中 순위	1 士榮사영 宣略將軍 선략장군 忠順衛中 순위	太始태시 竹山府使 임천부사	德祐덕우 箕子殿參奉 기자전참봉	尙正尙正 生父 德文	一道일도
											2 사용士雄 정릉참봉 靖陵參奉	태허太虛 箕子殿參奉 자전참봉	덕소德邵 장사랑 將仕郎	상진尙眞 통덕랑 通德郎 상원尙遠	지도志道 유도裕道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一道일도	2 應箕응기	1 禹範우범	鳳漸봉점 性理學者 성리학자												
		2 禹圭우규	2 麒麟기점	2 希默희묵	1 聖魯성로	1 永泰영태	4 智采지채	2 光世광세							
1 文道문도	1 應璧응벽	2 禹九우구	1 仁漸인점	1 聖默성묵	1 光世광세	1 永成영성	1 宗采종채	1 炳旭병옥 昌基창기	1 大奎대규	1 錫煥석영					
									2 商奎상규	1 錫坤석곤					
									3 丁奎정규	1 錫周석주					
지도志道	應素응소	禹瑋우장	2 鶴齡학령	1 載元재원	2 聖壽성수	2 相魯상로	1 旭采옥채	2 龜河구하	1 宅基택기	1 鍾宇종우	2 鳳涉봉섭	1 相日상일			
			3 麒麟기령	載旭재옥	聖鑄성주	永億영억	基采기채	경준(景駿)?	德基덕기						
유도裕道	응구應久	일대一大	2 命圭명규 학자,학암	1 瑞雲서운	1 光漢광한	相德상덕	俊東준동	龜文구문	惠基덕기	석호錫虎 국방장관 초대대종회장	俊涉준섭	相潤상윤			
										석주錫朱 육군소장	寅洙인수	晶媛정원			
					3 光運광운	1 相晉상진	2 沃采옥채	1 龜祥구상	1 東基동기	2 鍾翊종익	3 貞涉정섭	1 東燁동엽	1 智煥지환		

봉점 鳳漸, 19세, 성리학자(性理學者), 호(號) 탄옹(灘翁)
성리학자(性理學者)로 호(號)는 탄옹(灘翁)이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인(門人)으로 그 정통을 이어 사문(師門)에 높은 제자가 되고 또한 성품이 충심과 효심이 돈독(敦篤)하였다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

***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경상도 안동에서 학술을 강론하여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는 퇴계학맥의 중요한 계승자인 이재(李裁)의 외손으로 일찍부터 그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여 이항(李滉)-이현일(李玄逸)-이재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했다. 저서에 《대산문집》, 《약중편제(約中編制)》 《사칠설(四七說)》, 그리고 후세들이 편집·간행한 《대산실기(大山實記)》 등이 있다.
1735년(영조 11)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 전직, 병조정랑, 사간원정언, 사헌부감찰, 병조참지, 예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외관직으로는 연일현감, 강령현감(康翎縣監) 등을 지냈다.

탄옹공실기(灘翁公實記)에 보면...(탄옹공실기 요약)

1743년(영조 20년)에 용궁지촌리(龍宮枝村里)에서 나오시니 공이 나서부터 자품(姿稟)이 영민(英敏)하고 의표(儀表)가 단정하여 약관(20세) 전에 문사(文辭)가 크게 뛰어나 부친의 명령으로 대산(大山) 이선생(李先生)의 문인(門人)이 되어 학문이 날로 진취(進就)하니 선생께서 여러 번 포장(褒獎 : 칭찬하여 장려함)하고 그 정통을 이어 사문(師門)에 높은 제자가 되시고 또한 성품이 충심과 효심이 돈독(敦篤)하여 국휼(國恤; 임금이 사망한 것)을 만나면 주야로 배곡(拜哭 : 예를 갖추어 슬피 우는 것)하고 인산(因山; 임금 내외분이 죽어 장사하는 것) 후로부터는 음주를 전폐(全廢)하였으며, 어버이께서 종기를 앓으시어 대단히 위급하실 때에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인분(人糞)을 맛보아 그 병이 위급함을 알고는 탕제(湯劑)를 드리는데 정성을 극진히 하였으며, 겨울에 잉어가 스스로 뛰어 들어오며 또한 꿩이 스스로 날아들어 와서 봉양(奉養)하였으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미물도 공의 효성에 감동한 소치라고 하였다. 1801년(순조 2년) 11월 13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59세 이셨다. 이듬해 정월에 판서공 현옥량 묘하건좌(判書公墓下乾坐)에 장사 지냈다.

48.灘翁公實記

公諱鳳漸字儀甫號灘翁姓玄氏延州人高麗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
諡景憲諱覃胤寔公之鼻祖而本朝 太祖朝禮儀判書諱玉亮於公爲
十二代祖也考諱禹範妣蔚珍張氏以 英廟癸亥月日生公于龍宮縣
枝村里第公生而資稟敏穎儀表端重年未弱冠文辭大進以大人命執
贊于大山李先生之門學問造詣日益精深先生屢加獎誨承其嫡傳爲
師門高弟又性篤於忠孝遭 國恤晨昏拜哭 因山後常廢燕飲親有疽
患勢甚危欲吮膿嘗糞雜試湯劑靡不用其極而至有冰鯉自躍飛雉自
墜人謂之孝感之致也 純祖辛酉十一月十三日啓手足于寢享年五
十九翌年正月某甲禮葬于判書公墓下乾坐之原噫公講劇性理之學
既如是高明故爲世所推誦殫竭忠孝之誠又如是精篤故爲人所敬服
而生無展布於當世沒無聞揚於後日至今爲學士大夫所慨惜嗚呼天
之賦於公者何豈其始而畀其終也鄉道士林以尊賢衛道之心咸以爲
如公可立祠而俎豆之抱章叫 闕非一再而竟未蒙褒彰之典其或期
數月待而然歟今披其家狀所載略識其槩以俟後日立言之君子有所
取焉

歲甲子中秋下浣

傍齋 錫龜 謹識

현봉점에 대한 다른 기록

19세기에 류치명(柳致明 1777~1861) 편찬한 역사전기책자 사부(史部) 전기류(傳記類) 及門諸子錄(급문제자록)에 현봉점에 대한 항목이 있다. 이 책자는 2011년에 영남퇴계학연구원이 [고산급문록(상)(高山及門錄)]으로 번역 발행했다.

광세 光世, 24세. 1936년병자(丙子)생

자 휘언(輝彦), 호 송광(松光), 성균관대학 졸업, 대구,경북 종친회장, 대종회고문, 9수보편찬 총괄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대구광역시장 표창

병욱 炳旭, 24세. 자 창기(昌基) (1932-2024)

생부 정채(正采), 성균관대법과졸, 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국방대학원 안전보장과 정졸업 이사관, 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장, 88올림픽지원위원회 전문위원 서기관, 국방부정훈국 정신전력과장 서기관, 국방부정훈국 정훈과장 사무관, 국방부정훈과 신문주무담당 사무관, 국방부법무과 송무주무담당. 화랑무공훈장(1955년), 대통령 표창(1971년), 근정포장(1974년), 홍조근정훈장(1993년), 연주현씨 대종회 고문, <연주현씨원류사> 출간

상규 商奎, 25세, 1965년을사乙巳생

병욱의 차남, 건국대상과졸, (주)쌍용물류부 (주)동신글로벌마리타임 대표이사

정규 丁奎, 25세, 1970년경술庚戌생

병욱의 3남, 건국대 경제학과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관리실 사무관 교육주무담당

명규 命圭, 19세. 1668년(숙종肅宗4년)생

유학자, 자 여필(汝弼), 호 학암(學菴), 문학을 했으며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有文學行士林推仰)라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석호 錫虎, 26세. (1907-1988)

국방부장관,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초대연주현씨대종회장
해방 이후 제3·5대 국회의원, 민주당 조직부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종교인이다. 제 9·11대 국방부 장관, 제23대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했다. 호는 석계(石溪)이다. 1929년 대구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유학해 1933년 10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으며,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6년 전라남도 화순군수, 1938년 황해도 산업과장을 지냈으며, 1939년 5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북경 흥아원 사무관(베이징총영사관 영사) 겸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무부 사무관,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2등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다. 1944년 충청남도 광공부장으로 임명되어 광산 및 공업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사무를 담당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미군정청이 미군정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자 스스로 친일파라 하면서 사퇴의 변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1947년 미군정 중앙경제위원회 기획관을 거쳐 1949년 남선전기 부사장, 1952년 경성전기 전무취체역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고향인 경북 예천군에서 당선되었다.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개헌’으로 탈당해 새로 발족된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민주당 신파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다가 1954년 민주당 조직부장

에 선임되었다.

1956년 8월 자유당의 선거방해에 항의해 조병옥, 김도연, 윤보선, 양일동 등과 서울 태평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예천군에서 당선되었으며, 제2공화국에서 제9대 국방부, 제23대 내무부, 제11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방부 장관 재임 중 5·16군사정변을 맞아 장관직을 사임했으며, 장면, 김도연, 오위영, 조재천, 박순천과 함께 민주당 재건에 참여하기도 했다.

1962년 영세를 받은 후, 1965년 12월부터 1985년 7월까지 가톨릭교리연구소 소장으로, 1988년 12월까지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번역 및 집필 저서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역), 그리스도의 눈길(역),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해설전집(전6권) 등이 있다. 1977년 가톨릭 평신도로서는 최고 영예의 하나인 바티칸 로마교황청의 기사대장 칭호와 공로훈장을 한국인으로서는 장면에 이어 두 번째로 받았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 3 (민족문제연구소, 2009)/『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전 국방 내무장관 의원 현석호씨 별세』(『동아일보』, 1988.12.2.)/『민주당 내각 국방장관으로 5·16 맞았던 현석호씨』(『동아일보』, 1982.2.27)/『현석호씨, 천주교 새교회관 정립 지적』(『경향신문』, 1980.8.21.)/『바티칸의 기사대장 칭호받은 현석호씨 “여생을 교리전파에 바치겠다”』(『동아일보』, 1977.7.20)/『현석호씨 등 영세』(『경향신문』, 1962.12.18.)



현석호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는 박순천,
뒷줄 맨 왼쪽은 현석호, 장면 순
가운데는 신익희
뒷줄 왼쪽 첫 번째는 신창현, 두 번째는 곽상훈
대한민국의 제9대 국방부 장관

석주 錫朱, 26세. (1923~1994)

육사2기 졸업, 육군제1군부사령관(소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 졸업(제2기), 육군대학 졸업, 미육군 군수학교 수료, 국민대학 법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수료(정치연구생), 국방대학원 졸업, 국방부군수국장, 육군군수학교장, 육군본부병기감(육군준장), 육군보병제3사단장(육군준장) 육군보병제6사단장(육군소장) 육군본부군수참모부장 국방부인력차관보 육군제1군부사령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관급)



기4호
玄 現
錫 석
朱 주
(당55세)

◇ 학 령 ◇

지보국민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제2기)
육군대학 졸업
미육군 군수학교 수료
국민대학 법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수료(정치연구생)
국방대학원 졸업

◇ 경 령 ◇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제1군부사령관(소장)
육군보병제5사단장(육군소장)
육군보병제26사단장(육군소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육군소장)
육군본부 병기감(육군준장)
육군제1기 부사령관(육군 소령)
육군 제1기 부사령관(육군 소령)
국립중앙도서관장이(국립중앙도서관)

○ 보고듣는 사실들을 솔직하게 대변한다.

○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는 약을 쓴다.

○ 질서있는 공명선거 후손에게 물려주자.

○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힘이 강해진다.

올바른 정치, 명랑한 사회 !!

병무 炳武, 24세, 1954년생, 단국대 정책과학연 행정학박사, 대종회 감사, 지도위원

봉수 奉洙, 27세, 1935년생, 두산유리(주) 대표, 대종회 지도위원

장기 章基, 25세, 1947년생, 성광상사 대표, 대종회 이사

순범 淳範, 25세, 1948년생, 명성건설환경 대표, 대종회 이사

주락 周洛, 25세, 1964년생, 대종회 이사

찬경 讚景, 25세, 1959년생, 대종회 이사

석원 錫沅, 26세, 1967년생, 대종회 이사

석훈 錫勳, 26세, 1976년생, 대종회 이사

정섭 貞涉, 27세, 1946년생, 예천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인기 仁基, 27세, 1953년생, 자 병옥(炳玉), 대종회 이사

귀섭 貴涉, 27세, 1955년생, 대종회 이사

봉섭 鳳涉, 27세, 1970년생, 남서울화훼단지 대표, 대종회 이사

근식 根植, 28세, 1955년생, 자 병식(柄植), 대종회 이사

재환 在煥, 29세, 1955년생, 밸류아트택 대표, 대종회 이사